

“하늘이 뚝뚝했다” ... 전남 500mm 물폭탄에 ‘속수무책’

광양 산사태·해남 계곡 범람
2명 숨지고 주택 등 침수 피해
닭·오리 등 가축 폐사 잇따라

전남에서 이틀간 최대 500mm를 웃도는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관련기사 3·5·6면〉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2명이 숨지고, 주택이 침수되거나 부서져 이재민도 속출했다. 농경지 침수 피해 면적도 집계 때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2만1484ha(약 6500만 평)에 달한다.

6일 전남도와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0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해남 현산 526mm, 장흥 관산 460.5mm, 진도 지산 440mm, 고흥 도양 414.5mm, 강진 마량 398.5mm, 보성 득량 374.1mm, 여수 산단 368mm, 광주 남구 190.5mm 등이다. 해남 등 일부지역은 이틀 내린 비가 지난 6개월(1~6월) 누적 강수량(해남 496.4mm)을 넘어섰다. 1시간 최대 강수량은 진도 69.5mm, 해남 63.4mm, 강진 41.9mm 등을 기록, 7월 극값(시단당 최대 강수량)을 경신하기도 했다.

미처 대비할 틈도 주지 않고 짧은 시간동안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광양시 진상면 야산에서는 오전 6시께 산사태가 일어나 주택 2채가 매몰됐다. 소방 당국이 약 9시간 동안 구조 작업을 벌였으나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산사태 발생 지점 위쪽에서는 전원주택 인축을 위한 토목 공사가 약 2년간 진행됐는데 인근 주민이 4차례 붕괴 우려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인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남 삼산면에서는 새벽 3시 40분께 계곡물이 범람해 침수된 주택에서 일가족 5명이 고립돼 6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진도 49동, 장흥 24동, 해남 20동, 고흥 19동, 강진 17동 등 도내 곳곳에서 주택 130동이 침수돼 이재민이 속출했다. 하천 범람 및 산사태 우려로 집을 떠나 대피한 주민도 10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농경지 침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벼 침수 피해 면적과 발작물 피해 면적이 각각 2만1433ha, 49.8ha에 이른다.

가축 폐사도 잇따랐다. 도내 3개 농가에서 닭 3만4000마리, 오리 3만5000마리가 죽었다. 외양간 등 축사 침수 피해 농가도 27농가에 이른다. 장맛비가 일요일인 11일까지 수시로 예보되면서 농가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남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6일 오전 광양시 진상면 탄치마을의 주택 공사 현장의 경사면 토사가 흘러내려 주택 2채와 창고 3채를 덮쳐 소방당국이 매몰자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토사가 유입된 경전선 일부 구간에서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단축됐다. 이날 새벽 4시 45분께 토사가 유입된 벌교~조성역 구간 선로의 복구는 오후 들어 마무리됐지만, 추가 안전사고를 우려해 열차 운행 중단은 당분간 유지된다. 순천~광주송정역 구간 열차 2편 운행이 중지됐고, 순천~익산과 목포~순천 구간 열차 운행도 2편씩 통제됐다. 여객선은 전체 53항로 86척 가운데 21항로 33척이 통제됐고, 김포에서 여수, 여수에서 김포와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도 6편 결항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대구 ‘달빛동맹 2기’ 연다

이용섭 광주·권영진 대구시장
광주역에서 협약식 개최
달빛고속철도 추진위 구성

영·호남 대표도시인 광주와 대구가 달빛(달구벌-빛고을)동맹 2기 시대를 연다.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의지를 담아 광주시장과 대구시장, 민간위원이 대표를 맡는 달빛동맹 발전위원회와 달빛고속철도 조기건설추진위원회 등도 구성·운영한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6일 달빛고속철도 주요 거점역인 광주역에서 달빛동맹 2기 시대를 여는 ‘제2기 달빛동맹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6월 29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광주-대구간 198.8km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의 극적인 반영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달빛동맹을 더욱 발전시키자는 뜻을 담아 이뤄졌다.

협약식에는 광주에선 달빛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의 주역인 이용섭 시장과 조오섭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경제·사회단체 대표,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대구에선 권영진 대구시장, 김상훈 국회의원, 장상수 시의회 의장, 강은희 교육감, 이재하 상공회의소 회장, 박영기 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이날 행사를 통해 달빛고속철도가 경유하는 6개 광역자치체의 이름으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해 준 각계 인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달빛고속철도 건설의 의미와 동서화합·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은 달빛고속철도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 2021 달빛동맹 발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광주와 대구는 가장 먼저 달빛동맹의 교류 범위 확대를 위해 양 광역시장과 민간부문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달빛동맹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협약했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분야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는 물론 경제·산업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한 ‘달빛고속

철도 조기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지난 5월26일 선언한 ‘2038년 광주-대구 하계 아시아 안개임’ 유지를 위한 공동유치준비위원회 발족과 사전 준비 절차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은 “달빛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오랜 세월 정치적 이해관계로 갈라져 대립하고 갈등해야 했던 동서간 화합의 물꼬를 터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1700만명의 시장을 가진 동서광역경제권을 형성해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광주와 대구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할 공동운영체로, 정의로운 역사 위에 풍요를 더 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최대 200mm 더 온다 ... 저지대 침수 우려

5일과 6일 이틀간 곳에 따라 500mm를 웃도는 폭우가 쏟아진 전남지역에 7일까지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장맛비가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6일 오후 4시20분 예보에서 “7일까지 광주·전남은 흐리고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다. 특히,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예상 강수량은 6일 오후부터 7일

까지 50~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지난 3일부터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목포와 여수 등 전남 남해안 지역은 폭우와 만조 시기가 겹쳐 해안가 저지대 침수 가능성도 있으므로, 배수구 점검 등 사전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강조했다.

/김형호·김민석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명한
기독교문명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촘촘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렉스스프레이 및 전곡 베타딘, 아모레 카운셀링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렉스스프레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